

# 식약처, 의료제품 허가·심사 혁신 이끌 전문 인재 195명 신규임용

- 신약·바이오·의료기기 분야 허가·심사 인력 대거 확충으로 심사 전문성 강화 및 속도 향상 기대
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신약, 바이오시밀러, 의료기기 등의 신속한 허가·심사 지원을 위해 공무원 195명\*을 신규임용하고 임용식을 4월 2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\* 일반직 공무원 19명(약무 15, 의료기술 4), 연구직 공무원 176명(보건연구 125, 공업연구 51), 전체 경쟁률 약 12:1

이번 인력 확충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(‘25.10.16)에서 논의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의 핵심 조치로 규제과학 기반의 신속·정밀 허가·심사 체계를 강화하여 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.

신규 임용자는 ▲신약·희귀의약품 등의 품질심사 ▲바이오시밀러의 품질 및 안전·유효성 평가 ▲인공지능 등 신기술 의료기기의 안전·유효성 검증 등 핵심 분야에 배치되며, 현장 투입에 앞서 3주간 공직가치, 국정철학 등의 직무교육과 함께 의약품 품질·안전성·유효성 심사, 의료기기 성능 심사 및 안전관리 등 분야별 전문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게 된다.

특히 신규 임용자들이 단기간에 실무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 이후 심사·평가 현장에 즉시 투입되어 신속 허가·심사 실행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분야별 관련 법령, 허가·심사절차, 국제 가이드라인, 최신규제 동향 등과 함께 실제 허가·심사 사례에 대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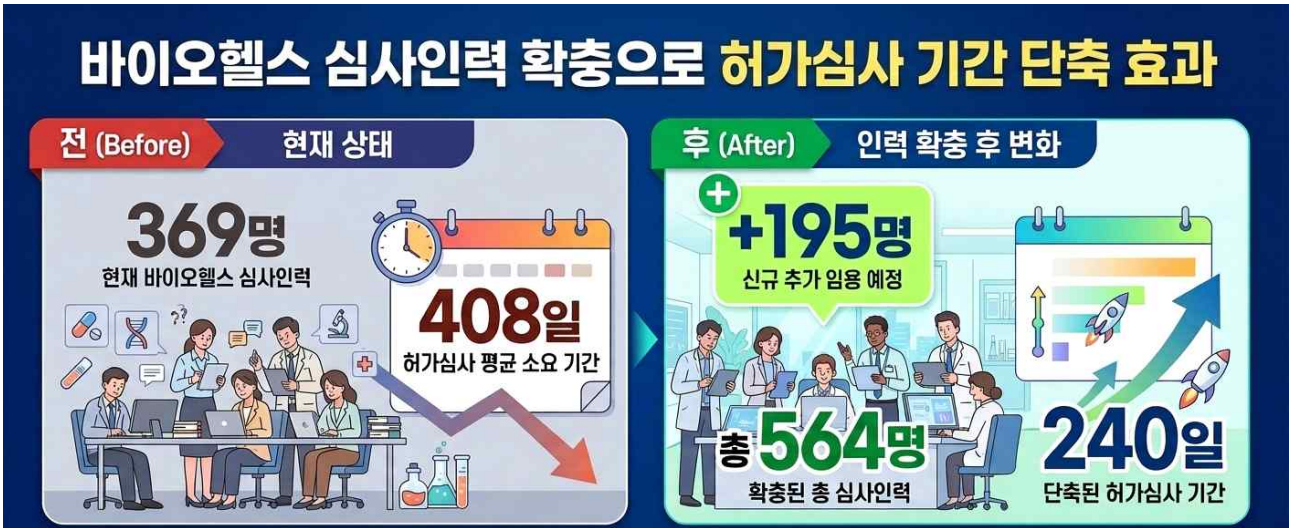
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임용식에서 “이번 신규인력 임용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바이오헬스 제품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”이라며, “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신뢰받는 허가·심사 체계를 통해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길 바란다”고 당부했다.

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철저한 허가·심사와 규제 혁신을 통해 변화하는 글로벌 바이오헬스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, 국민건강 보호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운영지원과	책임자	과 장	오규섭 (043-719-1221)
		담당자	연구관	김천수 (043-719-1251)
			사무관	최기환 (043-719-1241)



□ **인력확충에 따른 허가·심사 기간 단축**



※ AI 생성 이미지입니다.

□ **진행순서**

시간 계획		주요 내용	비 고
13:00~13:05	5'	• 개식선언 및 국민의례	
13:05~13:10	5'	• 간부 소개	
13:10~13:15	5'	• '대한민국 공무원' 및 '식약처 국정과제' 영상 시청	
13:15~13:20	5'	• 환영사	처장님
13:20~13:25	5'	• 임용장 수여식	처장님 신규임용자 대표(5명)
13:25~13:30	5'	• 공무원 헌장 낭독	신규임용자 대표(2명)
13:30~13:35	5'	• 기념촬영 및 폐회	전체